



13승 문턱서 넘어진 류현진... 이상 신호



5일 콜로라도전... 앞선 상황서 5회 못 채우고 강판 8월 중순부터 빠진 부진의 늪... 답답한 상황 이어져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체력 저하 논란에 휩싸인 건 지난달 초다. 이전까지 승승장구하던 류현진은 8월 18일(한국시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부진했다. 그는 경기마다 "제구가 되지 않아 실수한 것"이라며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애썼다. 사투를 펼치듯 경기 초반부터 있는 힘을 다해 공을 던졌다. 체력 문제 때문에 하체가 미세하게 흔들리

자 힘으로 상대 타자를 밀어붙였다. 평소와 다른 패턴으로 인해 경기 중 이상 신호가 잡혔다. 류현진은 1-0으로 앞선 2회 초 상대 팀 선두 타자 라이언 맥카흔과 폴카운트 승부 끝에 시속 146km의 직구를 던지다 발목이 살짝 꺾여 마운드에서 넘어졌다.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모습이었다. 특기할 만한 모습은 이쁜만이 아니었다. 이날 류현진은 상대 타자들과 유독 폴카운트 승부를 많이 했다. 그는 체력문제를 드러내기 전인 8월 초 까지 빠른 템포로 상대 타자들과 상대했지만, 이날 만큼은 많은 공을 던지며 고전했다. 류현진은 1회 잘리 블랙먼, 2회 맥카흔, 개럿 햄프슨, 4회 놀런 에러나도, 햄프슨, 5회 에러나도 등 6차례

나 폴타임 승부를 펼쳤다. 스트라이크 2개를 먼저 잡고도 결정구를 던지지 못해 폴카운트, 볼넷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류현진은 이날 올 시즌 한 경기 최다인 4개의 볼넷을 기록하기도 했다. 승리 투수 요건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교체된 것도 평소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류현진은 7-2로 앞선 5회 초 1사 후 블랙먼, 에러나도, 이언 데스먼에게 3연속 안타를 맞고 1점을 더 준 뒤 교체됐다.

데ιβ 로버츠 감독은 류현진이 데스먼에게 적시타를 허용하자 바로 자리를 박차고 마운드에 올라와 류현진이 잡고 있던 공을 빼앗았다. 승리 투수 요건을 눈앞에 둔 선수에게 공을 빼앗는 모습은 흔하지 않다. 로버츠 감독이 최근 류현진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다. 팀 내 입지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류현진으로선 답답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류현진이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투구 하고 있다.

최인철 女축구대표팀 감독 '선수 폭행설'... 조사 착수

대한축구협회가 최근 한국 여자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한 최인철(47) 감독의 '선수 폭행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5일 "최인철 감독이 (2011년) 대표팀 감독 시절 선수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위원장 김판곤) 감독소위가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곤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은 이날 밤 열리는 남자대표팀의 조지아와 평가전이 끝난 직후 투르크메니스탄과 2022년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원정에 동행하지 않고 귀국한다.

김 위원장은 최인철 감독을 직접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주장이 사실이 확인되고 선수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면 감독 계약 부분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US오픈 테니스 준결승 진출한 나달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8강전에서 디에고 슈와르츠만(21위·아르헨티나)을 꺾고 4강에 진출한 후 기뻐하고 있다.



제주도자전거연맹이 영주고 사이클부에 훈련차량을 기증했다. 사진=제주도자전거연맹 제공

"열악한 환경 극복 사이클 선수들 응원"

어제 제주도자전거연맹 영주에 훈련차량 기증

제주도자전거연맹이 전용경기장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영주고 사이클부에 훈련차량을 기증했다.

제주도자전거연맹 고혁남 회장과 강철훈 상임부회장, 강종훈 부회장은 5일 영주고(교장 김인기)를 방문해 사이클부에 2000만원 상당의 훈련차량을 기증했다. 고 회장 등은 현재 영주고 사이클부 차량이 노후화되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비를 모아 훈련차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경기장이 없는 환경을 이겨내고 실내 훈련과 일반 도로 연습만 하는 상황에서도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 전국 무대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며

"선수들의 발이 되어줄 훈련차량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창단한 영주고 사이클부는 2016년 제주로 이주한 오병훈 코치의 훈련을 통해 처음으로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두각을 나타낸 뒤 같은 해 충남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체전에서 제주도 사이클 사상 첫 메달을 안겨줬다. 이어 98회와 99회 전국체전을 비롯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2학년 입수지와 1학년 양가은이 국가대표 후보선수에 발탁되기도 했다.

한편 영주에는 타 지역과 달리 시합을 앞두고도 연습할 경기장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가야 하는 선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 2000만원 상당의 사이클 전용 트레이너를 지원했다.

표성준기자 sjyoo@halla.com

벼랑 끝 몰린 한국청소년야구, 대만에 완패

11년 만 정상 도전 적신훈 일본·미국 이겨야 결승행

11년 만의 세계 정상을 노리는 한국 청소년 야구 대표팀이 슈퍼라운드 첫판에서 대만에 완패하며 벼랑 끝에 몰렸다.

이성열(유신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부산 기장군 현대차 드림볼파크에서 열린 제29회 세계청소년 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 슈퍼라운드 첫 경기에서 대만에 2-7로 졌다.

2008년 캐나다 에드먼턴 대회 이후 11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한국은 슈퍼라운드 첫판에서 대만에 털미를 잡히며 우승 꿈에서 멀어졌다.

A조 조별 리그에서 캐나다를 8-5

로 꺾었지만, 호주에는 0-1로 패해 1승 1패의 전적을 안고 슈퍼라운드를 시작한 한국은 첫판에서 대만에 겨 1승 2패가 됐다.

슈퍼라운드는 A·B조 1~3위 팀이 진출해 조별 리그 전적을 안고 상대 조에서 올라온 세 팀과 대결한다. 이어 누적 성적 상위 두 팀이 결승전을 치른다. A조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B조에서는 일본, 미국, 대만이 슈퍼라운드 진출 티켓을 획득했다.

결승 진출을 위해서는 최소 3승 2패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해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됐다.

한국은 6일 일본, 7일 미국과 차례로 대결한다.

연합뉴스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못말리는 제주직항전세기

예약폭발
마감임박!

말레이시아/싱가폴/말라카

매주 2회출발 (4박5일)
(화, 목)

999,000 원~

쿠알라룸푸/말라카/젠팅

매주 2회출발 (4박5일)
(화, 목)

799,000 원~

장사/장가계 5일

매주 일요일
출발

999,000 원

(포함: 팀·중구비자비)

방콕/파타야 3박5일

매일 출발

589,000 원~

대만 3박4일

출발일: 여행사 문의
(팀별도)

699,000 원~

백두산 북파서파

출발일: 여행사 문의
(비자비, 팀별도)

690,000 원~

브루나이공화국 3박 5일

12/21㉮ 꿈에 그리던 휴양지
12/25㉮ 7성급 호텔에서 휴양!

제주직항 1인 **1,590,000 원**

▲ 전일정 7성급호텔 스위트룸 3박
▲ 노쇼핑 상품 ▲ 읍선2가지 포함

하노이/하롱베이/닌빈(짱안) 3박5일 제주직항으로 떠나는 환상의 여행

10/02㉮ 전야석 20석, 12/28㉮

“황금연휴특가”

제주직항 선착순 **899,000 원**

★특식3회 (파라다이스뷔페, 씨푸드, 삼겹살 무제한)
★전선마사지 1시간 (팀별도), 베트남 전통노자 증정, 스트라카 포함

ATA 공/통/사/항 왕복항공료, 1급호텔(2인1실), 일일상의 식사제공, 관광지 입장료, 전용차량료, 인솔자 부분별 동행, 1억원여행자보험, 전정보환료, 관광진흥기금, 공항세, 최소 15명 이상 출발 모집마감-선착순 ★불포함: 가이드 & 기사 팀/개인비용, 부가세 불포함